‘금강경’, 불화로 담아내다

무우수갤러리, 장혜경 개인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금강 같은 지혜 화폭에 구현
작가의 수행 성찰 결실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혜경 작가의 작품 ‘금강경을 설하다’.

대승불교 핵심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은 집착을 내려놓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경전으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금강경〉에 담긴 가르침을 불화로 구현한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장혜경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 금강경을 설하다’를 개최한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 불화로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이는 장혜경 작가는 오랜 시간 경전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쌓아온 수행과 성찰의 결실을 이번 전시에 담아낸다.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니다. 붓을 들고 색을 얹는 매 순간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추는 수행의 시간이며, 그 과정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작가는 경전의 가르침처럼,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구게(四句偈)’ 하나를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붓 끝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한다.

장 작가의 작품은 전통 불화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채도와 명도를 높인 밝고 경쾌한 색채와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더해 눈길을 끈다. 주요 출품작들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금강경〉을 설법하시는 장면을 중심 도상으로 삼는다. ‘꽃비 내리다’는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법문을 듣는 순간 가릉빈가(迦陵頻伽)가 춤추고 천녀들이 노래하며 제자들이 찬탄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꽃비처럼 펼쳐진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금강경〉의 핵심인 ‘금강(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제로, 설법을 듣는 불제자들의 금강석 같은 환희심을 화폭에 담아낸다.

장 작가는 “작품은 경외심 속에서도 친근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전달하려 했다”면서 “제 작품을 보는 순간 관람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 작가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불교미술협회 및 미르예술협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불화 양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불화를 선보여 왔으며, 2023년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한벽원미술관·한국미술관 등 주요 기관에서의 단체전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무우수갤러리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화사하고 환희로운 불화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람료 무료.

올해도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7~8월 총 11회차 진행
명상, 서핑, 요가 등 체험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모습.
사진 제공=낙산사

관음성지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의 여름 명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서핑 템플스테이’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양양 낙산사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총 11회차에 걸쳐 ‘여름특집 서핑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서핑 템플스테이’는 양양의 대표적인 해변이자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인 ‘서피비치’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기획된 낙산사의 여름 시즌 대표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와 해양 레포츠인 서핑을 명상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이색적인 구성으로, 매년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MZ세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다를 마주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파도명상’과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소리명상’, 요가와 절운동을 접목한 ‘요가형108배(혹은 108배 염주 꿰기)’, 내 몸을 깨우는 ‘모닝요가’, 고민과 궁금증을 스님께 물어보는 ‘즉문즉설’ 등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깊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서핑 강습이 끝난 후에는 낙산사에서 직접 정성껏 준비한 ‘사찰식 비빔밥’을 해변에서 먹는 특별한 공양 시간이 마련된다.

서핑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낙산사에서 진정한 휴식과 명상을 경험하고, 서핑으로 활기찬 에너지를 채워가는 특별한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름특집 서핑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https://naksansa.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㊺ 삼일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

누가 많이 웃고 있는가?

三 日 修 心 千 載 寶

끝없는 탐욕이 가져오는 인생의 허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당나라의 한 젊은이 노생은 부귀영화를 꿈꾸며 한단의 주막에서 도사 여옹이 건넨 청자 베개를 베고 잠이 든다. 꿈속에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물을 쌓는다.

마침내 권력의 정점인 재상의 자리에 올라 50년 동안 천하를 호령한다. 그러나 팔십 노인이 되어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한다. 주막 주인이 불에 올려놓은 기장밥이 아직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것이다. 50년에 걸친 탐욕과 부귀영화는 한 그릇의 밥이 익는 동안 꾸었던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았다. ‘한단지몽(邯鄲之夢)’의 일화는 영원할 것 같던 물질적 집착이 결국 한 순간의 물거품에 불과함을 일깨워 준다.

반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유쾌한 일화도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자의 마부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마차를 몬다는 사실만으로 늘 우쭐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다.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퇴근한 남편에게 뜻밖의 말을 꺼낸다.

“오늘 보니 안자 님은 비록 키는 작으셔도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며 늘 겸손하시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의 마부일 뿐이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양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만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해 주세요.”

아내의 날카로운 한마디는 마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허세와 교만을 내려놓았다. 소박하고 정직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며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 그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세속의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은 순간, 그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한단지몽의 허망함과 안자 마부의 깨달음은 재물과 명예보다 바르게 닦은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고려 말 야운 스님은 〈초발심자경문〉 ‘자경문’에서 이렇게 경책하신다.

“올 때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느니라.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이 몸을 따를 뿐이니라.”

또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해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니라(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라는 명구도 남기셨다.

성공 신화의 높은 탑을 쌓느라 분주한 오늘, 한 시인의 짧은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행복〉 전문–

〈화순 불암사 주지〉

‘노래하는 풍경 2집’ 발매

풍경소리, 신작 찬불가 8곡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 이하 풍경소리)’가 여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 2집’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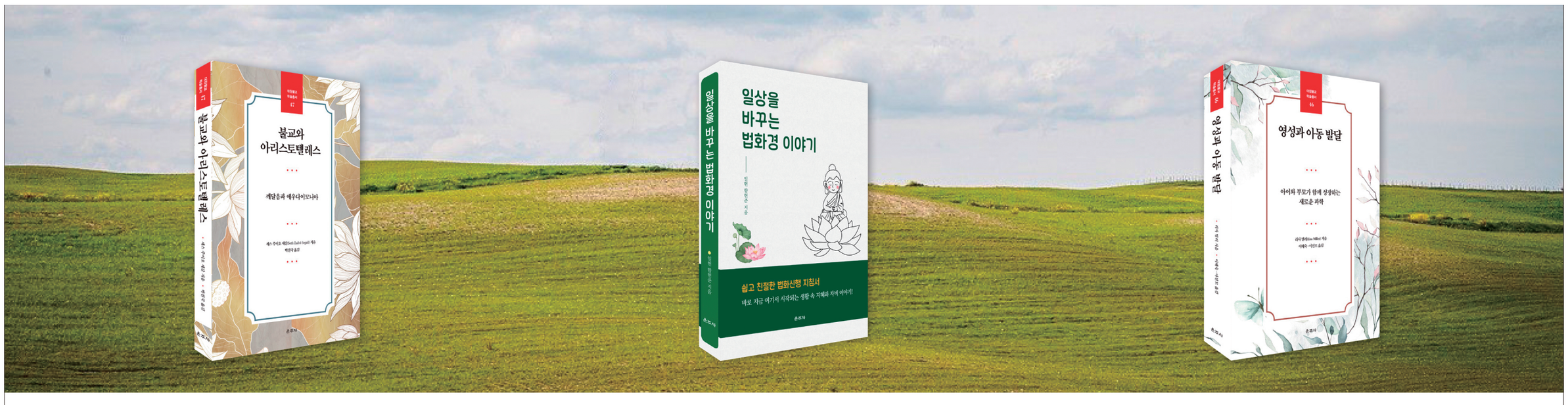
‘노래하는 풍경 2집’은 지난 풍경소리 작품집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 창작 찬불가 8곡이 수록됐다.

1번 트랙 ‘아미타불’은 오랫동안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한 강영화 작곡가의 작품으로 바리톤 김재일과 불교계 유일 남성합창단 ‘선불합장단’이 함께 노래했다. 풍경소리 작품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찬불가로는 최미선 작곡가의 ‘미소’, ‘가만히 귀 기울이면’이 수록됐다.

풍경소리와 불교음악계의 큰 스승인 덕신 스님이 작사가로 참여해 ‘자등명법등명(정유탁 작곡)’, ‘해탈이어라(이종만 작곡)’ 등을 제작했으며 가요 ‘타타타’의 불자 가수 김국화 씨가 참여해 트로트 찬불가 ‘실타래 인생(차영화 작사, 이종만 작곡)’을 직접 불러 눈길을 끈다.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래하는 풍경 2집’은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 창작을 통해 대중화에 힘썼다”면서 “불교음악 대중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